

전주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정원산업박람회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5월 2~6일 개최... 정원산업전·정원 전시·정원문화 프로그램 등 진행

정원산업 관련 138개 업체와 세계적인 정원작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정원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원산업의 도약을 이끌 업체들과 정원 전문가 및 시민이 조성한 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산업전 △정원 전시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박람회에서는 정원산업 관련 138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정원 소재를 선보이는 정원산업전이 펼쳐지고, 초청 전문가와 시민작가가 조성한 정원, 산업체 협업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4회째를 맞이한 올해 박람회에는 지난해(103개 업체)보다 많은 35개 늘어난 138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



정원산업 관련 138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린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혀 전국 최대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정원식물 품종전시장에서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참여한 식물 소재의 농가에서 보유한 식물들을 포함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우수한 정

원식물 250종이 전시된다.

아간 개최의 경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산책하며 자연과 박람회를 즐기고 싶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

장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정원(나의 도시 자랑) 전시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정원여행 △정원식물 미니 꽃다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족 화분 만들기’, ‘정원식물 미니 꽃다발 만들기’ 등 일부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가능 인원의 50%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www.jgcf.kr)에서 할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현장 예약 후 참여할 수도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며 “정원문화가 자연스럽게 시민의 삶에 스며들어 정원을 통해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23일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일원에서 ‘보훈누리공원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호국영웅 숭고한 정신 기린다

전주시, ‘보훈누리공원’ 조성 완료... 여는 날 행사 가져

전주시는 23일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일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오영재 육군35보병사단장,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청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누리공원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설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육군35보병사단 군악대와 전주교대부설초 상록소리새 중창단이 축하하모니를 선보여 새로이 조성된 보훈누리공원의 의미를 더했다.

보훈누리공원은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잠엄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일원 3만366㎡부지에 총 9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이곳은 △독립운동 추모공간 △국가수호 추모공간 △기억의화공간 △교육체험공간 4개 구역으로

조성됐으며, 보훈누리전시관과 추모의 벽, 호국분수, 상징조형물 등도 새롭게 들어섰다.

특히 보훈누리전시관의 경우 광복~6.25 한국전쟁~월남전까지 전반적인 호국보훈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항일독립운동관과 6.25전쟁관, 베트남전쟁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보훈누리공원이 추모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가족 단위 체험 공간이자, 인근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등과 연계해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새로운 보훈누리공원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며 호국영웅을 고취시키는 배움의 장소이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아동학대 예방 위한 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주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 필요한 아동에게 의료·검진비·필수물품 등 지원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관련 절차 후 본격적인 피해가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 후 사례 판단하기 전이나, 사례를 판단해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

심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가구당 50만 원 이내로 최소 20가정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에 나서 가족기능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우선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 긴급하게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검진비와 필수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자녀 양육 기술과 학대 예방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간 유대 활동 및 감정공유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대 판단 전·후로 긴급한 지

원이 필요한 피해 아동 31명에 대해 의료비와 돌봄서비스, 생필품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이력 이 있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회복 서비스와 의료검진비, 필수물품 등 신속한 지원으로 재신고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 추진

전주시의회는 23일 의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내달 1일부터는 청사 내에 일회용품의 반입도 금지할 계획이다.

의회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텀블러와 머그잔, 장바구니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다회

용기를 상시 비치기로 했다.

또 매일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운동의 동참을 상기시킬 방침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의회에 앞장선다는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의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한다.

화산체육관에 ‘몰카 방지’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화산체육관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안심 스크린은 화산체육관 화장실 11곳에 설치됐다. 넓이 90~140cm, 높이 15cm 규격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 부분을 막아 옆 칸이나 외부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로 칸막이 내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막는 용도다.

공단은 체육 동호인들은 물론 대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화산체육관을 찾는 시민들을 몰카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화산체육관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평상시 체육시설로 활용되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각종 상업 행사와 문화행사로 많은 인파가 운집한다.

공단은 또 탐지기를 구비해 주기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호를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